

#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청신호

### 유성엽 위원장, "문화재청, 설립 실무추진 검토 중"... 9월경 신설 여부 결정될 듯

전북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한 국립 전북 문화재연구소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일 문화재청이 국외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읍고창, 국민의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백제, 후백제, 가야, 마한 등의 핵심 유적 조사와 연구를 위해 전북지역 국립문화재 연구기관 설립에 적극 공감하고, 실무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연구소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설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단일 기관화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기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언했다. 연구소 유치의 의사를 보인 곳은 전주, 익산, 남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백제와 후백제의 왕도이자 가야 문화유산의 보고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반열에 올랐으며, 백제 중방문화 꽃피운

정읍 고사 부리성과 김제 벽골제, 백제 부흥운동의 산실인 부안 백강구, 특히 후백제 문화 등은 전북이 백제 역사 변방이 아닌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곳곳에 찬란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전북도이지만, 전문적 연구기관인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없어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청의 추진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연구소가 착공되면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고대 문명의 한 축으로서 전북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개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빠르면 내년 3월경, 문화재청이 행정안전부 조직신설에 관한 요청을 할 시 행정안전부에서 8월경까지 검토를 할 예정이다. 관련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와 협의의 통해 9월경 국립전북문화연구소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전북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적극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진성 기자

## 트럼프, 25년만에 국민 방한... 7일 韓美 정상회담 평택 기지 방문·정상회담·국회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오는 7~8일 우리나라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에 국민방한으로 방문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7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 국민 방한 행사에 참여한다. 8일에는 국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비전을 담은 연설을 한 뒤 국립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3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7일 정오께 우리나라에 도착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으며 21발의 예포 발사 등 국민 예우에 따른 공항 도착 행사를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한 다음 한·미 양국 군의 합동 정세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평택 기지는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 달러 가운데 92%를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다.

7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내외 참석 속에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다. 곧이어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 확대 회담, 두 정상간 친교 산책 순으로 경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상춘재에서 별도로 환담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있는 상춘재에 합류해 지난 6월 방미에 이어 우의를 다지는 친교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지는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정상 내외와 양국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화 공연을 포함한 국민 만찬이 열린다. 국민 방한 행사는 우리나라의 퓨전 전통음악과 케이팝(K-POP) 콘서트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주한미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우리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등과 사전환담을 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를 할 예정이다.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맹의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는 행보다. /뉴시스

## 정동영

###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부영 특혜, 인천 공항 활강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인"에 선정했다.

경실련은 "2017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왔다" 지적하고 "당리 당락에 얽매인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 수립에 앞장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위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추진"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국토부장관의 답변으로 후분양제는 201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했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건설노동자 임금 직불제, 정부 소유 토지자산 재평가와 공공택지 매각 중단 요구,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명예소방관 위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배우 정우성, 한지민을 명예소방관에 위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배우 한지민(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배우 정우성, 조종욱 소방청장.

## 박재만 도의원,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해야"

### "학교급식에 도내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표준 식단제도"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7년 전 의무급식이 도입된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주시 등 5개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5개 시 지역의 고등학생 중 총3만4,606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을 먹고 있다"며 "급식비용은 학부모들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원도가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 전체 4만 명에 이르는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도내에

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도내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내 5개 시에서는 전주시 26.3%, 군산 29.9%, 익산 39.8%, 남원 45.7%, 김제 64.6% 수준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제2기 지방자치대학 61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기 지방자치대학 모집결과, 61명이 지원했다.

지난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2018 지방선거 승리 출마 예정자'를 위한 제2기 지방자치대학 신청자를 모집했다.

제2기 지방자치대학은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국제한식조리학과 경기전홀에서 진행된다.

제2기 지방자치대학은 1기 과정과 마찬가지로 '2018 지방선거 승리 전략', '정당정치와 선출직 공직자 역할', 'SNS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설방법 및 스피치' 등 교양과 실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유의사항 숙지에도 주요안정을 줬다.

김춘진 위원장은 "준비된 후보이고 전북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시길 바란다"면서 "많이 배워서 내년에 민주당 후보로서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18 지방선거승리전략을 모색하고 출마예정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9월 7일 제1기과정을 첫 개설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융·용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경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한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윤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암서예관	김암 송성윤전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 Council Korea** **UJIN** **일진그룹**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